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은 언제...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복지 인프라 구축
중앙정부 지원 근거 담은 특별법 국회 통과 안 돼 난항

노동이사제와 함께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노사상생 정신을 구현할 한 축인 사회적 임금(사회적 복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광주시와 노동계가 애를 태우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으로 첫 발을 내디뎠으나,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글로벌모터스 최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올 1월 투자협약서에서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주는 대신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근로자 평균 초임을 대기업과 견줘 상대적으로 낮은 3500만원(주 44시간 기준) 수준으로 하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 등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임금 격차를 보전할 만한 수준의 사회적 임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서에 참석, "정부도 광주형일자리 성공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

다.

그러나 지난 20일 광주형일자리 적용 모델인 자동차공장 건립과 운영을 맡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한 뒤에도 광주형일자리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복지의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다만 광주시가 추진하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건립 등 일부 복지 사업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노사동반지원센터는 광주형 일자리 노사갈등 예방·중재·조정, 산업·교육·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이다. 국비와 시비 450억원을 들여 오는 2022년 6월까지 빛그린산단 8249㎡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센터를 세우는 내용으로, 지난 22일 정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다. 빛그린산단 입주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2곳도 설립이 확정됐다.

하나는 빛그린산단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으로 50억원을 투입, 정원 150명 규모로 세워진다. 이와 별개로

빛그린산단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을 통해 정원 70명 규모의 어린이집도 들어선다. 2021년 3월 개원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애초 빛그린산단 인근 부지를 매입해 8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 등이 여의치 않은 탓에 광주시는 현재 도심 곳곳에 위치한 행복주택(LH공사) 입주를 안내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행복주택 지원은 전국 어디서나 현행 법 아래서도 지원 가능한 내용"이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교통 편의 제공 등 체계적인 복지 지원 내용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광주형일자리 근로자를 위한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에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비리 저지른 車 비전문가에 '광주형 일자리' 맡긴 광주시

이용섭 시장, 커지는 반대 여론에도 박광태 대표 고수

확산하는 반대 여론에도 이용섭 광주시장은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초대 대표이사 박광태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요 주주와 협의를 거쳐 인선한 적임자로, 발기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사민정 대타협의 산물인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사업 대표를 일반 사기업 대표이사 자리와 동일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장이 재임 중 '상품권 갱'과 같은 비리를 저질러 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받아 형기가 끝난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시민의 염원이 깃든 광주형일자리 기업의 수장을 맡는다는 것이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집행유예가 마무리되더라도 2년 이내에는 대표를 맡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성격을 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대표로 박 전 시장이 취임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광태 초대 대표이사 선임은) 다양한 경륜과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 무게감 있는 인사가 맡아 초기에 조직을 안정시켜야하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자리는 해택을 누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 자리"라며 "공장건설, 중앙정부의 지원, 주주간 협력, 노사상생 등 풀어가야 할 일이 한 둘이 아닌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요 주주와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시각으로 인선했고, 발기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터져 나오는 '박광태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도 '박광태 카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

히 한 것이다.

이 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매사를 비난하고 폄하만 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까지 수용하다 보면, 광주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광주는 발전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 목소리를 '광주 발전 저해 요소'로 깎아내리기도 했다.

앞서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21일 논평에 "소도 웃고 갈 일"이라며 "박광태 전 시장의 대표이사선임을 철회하고, 시민의 눈높이와 '광주형일자리' 정신에 걸맞는 노동존중이사를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 21'은 보도자료를 내어 "초대 대표이사 박광태 전 시장 선임은 이용섭 시장이 천명했던 인사원칙(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중 그 어느 것 하나 부합하지 않은 '반 노사민정' 추천의 결과"라며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단체는 "광주형일자리엔 광주 시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며 "박 전 시장은 전직 시장에 3선 국회의원이자라고는 하지만, 자동차 비전문가에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상품권 갱' 등 우려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시정운영에서 보여 주었던 일방독주형 업무방식은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에 반하는 리더십으로 이용섭 시장의 자충수"라며 박 전 시장의 리더십을 문제삼았다. 또 "비리전력과 비전문성 외에도 팔순을 바라보는 고령이라는 점도 광주형일자리 초대대표이사에 가당키나 하느냐"며 팔쩍뒀고 있다.

일부에서는 "완성차공장의 경우 2만 5000여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만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대표이사는 자동차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대·기아차 등 기존 완성차업체 CEO급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軍, 독도방어훈련 돌입

'동해 영토수호훈련' 명칭 첫 사용 ... 예년 전력 두배 규모

군이 25일 오전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력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만으로, 대화와 외교를 외면하는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두 번째 대응 카드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2면>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합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의 명칭은 작년까지 사용했던 '독도방어훈련' 대신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명명됐다.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

해군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투입된 해군과 해경 합정은 모두 10여 척, 육·해·공 항공기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포함해 10대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했다.

2010년 창설된 제7기동전단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4400t급) 구축함 등을 보유한 해군의 최정예 전력이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날 한국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 중지를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를 일축했다.

/연합뉴스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 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들이 독도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